

광주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활기

작년 한건도 없던 인허가 울들어 5건 300여가구

전세대란 속에 분양과 임대 사업이 가능한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이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지난해까지 단 한 건도 없었던 광주지역은 올해 들어 5건 300여 가구에 대해 인허가를 받았거나 진행 중이다.

7일 국토해양부와 광주지역 5개 자치구에 따르면 정부가 최근 전세난 해결 방안으로 적극 장려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승인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단 한 건도 없었던 광주지역은 올해 들어 4건 282가구가 사업승인 됐고, 1건 24가구가 현재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전남지역은 지난해 1년간 원형형 도시형 생활주택 141가구가 인허가 됐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12㎡~50㎡에 해당하는 원형형과 85㎡(전용면적

25.7평 국민주택 규모) 미만의 단층형 다세대·연립으로 분류되는 공동주택이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난개발이 우려되지 않는 도시지역에 30가구 이상 150가구 미만으로 지을 수 있다.

빨리 지을 수 있는 소형주택으로 전세난 대안으로 최근 각광받고 있다. 정부도 이에 맞춰 국민주택기금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등 전월세대책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늘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같은 장점으로 최근 광주에서만 도시형 생활주택이 동구 83가구, 서구 96가구, 북구 24가구, 광산구 103가구의 건설이 인허가 됐다.

G건설은 동구 수기동에 8층 규모 전용면적 20㎡(6평)~29㎡(9평) 83

가구를 짓는다. 이 건설사는 또 서구 쌍촌동 옛 등기소에 4층 규모 전용면적 16㎡(5평) 96가구도 건설할 계획이다.

K건설은 광산구 첨단 상업지역에 주상복합 8층 규모 전용면적 19.22㎡(5.8평) 40가구와 9층 19.15㎡(5.8평) 63가구 등 총 103가구를 건설한다.

이밖에 북구 중흥동에 개인사업자가 5층 규모 전용면적 15㎡(4.5평) 24가구를 사업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태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택의 개념이 소유에서 거주로 바뀌고 독신이나 2인 가구가 늘면서 소형주택의 수요도 덩달아 늘고 있다"며 "특히 도심에 건설되는 데다 아파트보다 저렴하게 생활할 수 있어 학생·직장인에게 인

■광주지역 도시형 생활주택 인허가 현황

장소	가구수	규모
동구 수기동	83	20~29㎡
서구 쌍촌동	96	16㎡
북구 중흥동	24	15㎡
광산구 첨단 상업지역	40	19.22㎡
	63	19.15㎡

※ 북구는 인허가 진행 중

기가 높다"고 말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광주·전남지회 신수호 사무처장은 "아파트 공급을 통해 전세난을 해결하는 데는 최소 2년이 걸리기 때문에 사업기간이 짧은 도시형 생활주택이 하나의 대안이다"면서 "특히 도심 곳곳에서 중단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대체할 수 있고 자투리땅 활용이 가능해 도심공동화 해결의 유효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새봄, 아웃도어 쇼핑 인파

7일 광주 신세계 백화점 1층이벤트 행사장에서 열린 '아웃도어대전'에 백화점 개장과 함께 많은 시민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13일까지 일주일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노스페이스, 리퍼마, K2 등의 등산용품 4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7일 광주 신세계 백화점 1층이벤트 행사장에서 열린 '아웃도어대전'에 백화점 개장과 함께 많은 시민들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13일까지 일주일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노스페이스, 리퍼마, K2 등의 등산용품 40%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은행장 후보 5명 압축

차기 광주은행장 후보자가 5명으로 압축됐다. 송기진 현 광주은행장과 강경수 광주은행 상근 감사위원, 김계성 우리은행 부행장과 남경우 KB선물사장, 박정규 전 남경우 KB선물 사장, 박승희 전 우리금융지주회사 전무, 최영하 광주은행 전 상무 등이다.

7일 광주은행 등에 따르면 우리금융 자회사 은행장후보추천위원회(행추위)는 후보등록을 한 8명의 후보자 중 서류심사를 통해 이날 오후 5명으로 압축했다.

지난 4일 광주은행 차기 행장 후보자 등록 마감 결과, 송기진 현 광주은행

장을 비롯해 강경수 광주은행 상근 감사위원, 김계성 우리은행 부행장, 남경우 KB선물사장, 박정규 전 우리금융정보부장, 박승희 전 우리금융지주회사 전무, 최영하 광주은행 지점장, 최영하 광주은행 전 상무 등 총 8명이 후보등록을 마쳤다.

당초 유력 후보로 거론됐던 호남 출신의 최승남·김경환 우리은행 부행장이 접수하지 않아 송기진 행장의 연임이 유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이번 행장 선임에 행장추천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이팔성 우리금융 회장의 의중이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두 후보가 접수하지 않은 것과 서류심사 후 5명으로 후보자가 압축돼 송 행장의 연임이 유력해질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차기 광주은행장은 행추위가 오는 15일 면접을 거쳐 후보자를 선임하고 25일 예정된 우리금융 주주총회 이전에 열리는 광주은행 주총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외환은행장 운용로씨 사실상 확정

차기 외환은행장으로 운용로(56) 전 기업은행장이 사실상 확정됐다.

외환은행 인수를 앞둔 하나금융지주는 7일 등기임원 추천기구인 경영발전보상위원회(경발위) 회의를 열어 윤 전 행장을 외환은행장 후보로 추천했다.

또 이날 하나금융 회장과 사장, 하나은행장, 감사 등 사내 등기임원 4명

을 운용로 차기 외환은행장과 김치환 하나대투증권 사장을 포함해 6명으로 늘렸다.

중앙고와 한국외대 영어과를 졸업한 윤 전 행장은 1977년 행정고시(21회)에 합격한 뒤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2국장,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겸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다.

김 회장은 앞서 영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을 정도의 글로벌 감각, 금융산업에 대한 식견, 60세 미만의 젊은 나이 등을 외환은행장의 요건으로 내세웠다.

윤 전 행장은 오는 12일 외환은행 이사회와 29일 주주총회를 거쳐 외환은행장으로 최종 선임된다.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가 아직 승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환은행 이사회에서 윤 전 행장을 차기 은행장으로 추천하는 형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준열 하나금융 사장과 김정태 하나은행장은 1년 임기로 연임하게 됐다. 김 사장과 김 행장의 연임은 오는 9일 하나금융 이사회와 25일 주주총회를 거쳐 확정된다. /연합뉴스

광양항 컨테이너 물동량 급증

17만TEU...전년비 14.7%↑

국토해양부는 지난 2월 전국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148만4000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로 잠정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작년 같은 달의 136만8000TEU보다 8.5% 증가한 것으로, 역대 2월 물동량으로는 최고 실적이다. 수출입화물은 미국과 중국 등 주요 국가와의 교역량 증가에 따라 작년 같은 기간보다 10.7% 늘어난 94만4000TEU를 기록했다. 환적화물(49만8000TEU)은 1.8%, 연안화물(4만

2000)은 61.3%가 각각 증가했다.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의 약 74%를 처리하는 부산항의 2월 물동량은 작년보다 8.4% 늘어난 109만8000로 집계됐다.

미국 및 중국과의 수출입화물 증가세가 계속됐으며, 환적화물은 소폭 상승했다. 광양항은 환적화물 유치 확대 등에 힘입어 작년 같은 달보다 14.7% 증가한 17만TEU를 기록했다. 인천항은 중국 춘철 영향으로 수출입 물량이 줄어 전년 동월 대비 14.9% 감소한 10만6000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1,980.27 (-24.41)
코스닥지수	518.77 (-0.02)
금리(국고채 3년)	3.92% (-0.02)
원·달러 환율	1,119.20원 (+4.6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전세난 속 광주 아파트 경매 인기

전세난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아파트 경매시장에서는 낙찰가율이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부동산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광주 아파트 경매시장 낙찰가율은 89.9%로, 전체 낙찰된

88건 가운데 감정가를 넘겨 낙찰된 물건이 66건에 이르는 등 전달(86%)보다 오르며 90%에 육박했다. 전남의 낙찰가율은 95.5%로 전달(62.1%)보다 크게 상승했다.

이처럼 낙찰가율이 상승한 것은 전

세년이 계속되면서 값싸게 장만할 수 있는 경매 아파트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낙찰가를 상승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지역에서는 모두 116건의 경매가 진행돼 88건이 낙찰돼 낙찰률 75.9%를 기록했고, 평균 응찰자는 7.9명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은 모두 55건이 진행돼 26건이 낙찰, 낙찰률 47.3%를 나타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지나해 성인 1명당 커피 312잔 마셨다

11만7천 수입 사상 최대

커피전문점 확산 등에 힘입어 지난해 커피 수입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7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로 수입된 커피는 11만7000t, 4억2000만달러에 달했다. 커피 수입량은 2007년 9만1000t, 2008년 10만7000t, 2009년 10만5000t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커피 1잔에 약 10g의 커피가 들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 성인 1명이 312잔의 커피를 마신 셈이다.

외국계 커피전문점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미국산 원두 10g의 수입원가는 123원이었다. 가장내 소비와 소규모 창업이 늘면서 에스프레소머신 수입 규모가 2005년 대비 4배 이상 성장해 지난해 3280만달러에 달했다.

한국식 인스턴트 커피가 인기를 끌면서 커피 조제품 수출도 지난해 1억3천만달러에 이르렀다. /연합뉴스

'저축강국' 옛말...가계 저축률 추락의 늪

지난해 2.8%...미국 절반에도 못미쳐

저축강국으로 통했던 대한민국의 가계 저축률이 한없이 추락해 최대 소비국가인 미국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이처럼 저축률이 계속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면 기업의 투자여력이 감소해 국민경제 전반에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

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가계 저축률(저축액/가처분소득)은 2.8%로, 저축률 자료가 제시된 20개 회원국의 평균 저축률 6.1%에 크게 못미쳤다.

이는 덴마크(-1.2%), 체코(1.3%), 오스트레일리아(2.2%), 일본(2.7%)에 이어 5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한국의 저축률은 소비왕국으로 통하는 미국에조차 역전된 상황이다. 미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소비를 줄여 저축률이 크게 올랐지만, 한국은 여전히 저(低)저축률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다.

2007년 2.1%였던 미국의 저축률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은 2008년 4.1%로 상승했고, 이후 2009년 5.9%, 2010년 5.7% 등 5% 후반대를 유지

했다. 앞으로는 2011년 6.0%, 2012년 6.1% 등 6%대로 올라갈 전망이다.

반면 한국은 2007년과 2008년 각각 2.9%였던 저축률이 2009년 3.6%로 반짝 상승했으나 2010년에는 2.8%로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한국의 저축률이 미국보다 낮아진 것이다.

특히 2012년 한국 저축률은 2.8%로 전망돼 3.1%인 일본에도 추월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계 저축률 급감은 소득 증가율 둔화, 각종 사회보험금 증가, 금리 하락 기조, 소비 행태 변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연합뉴스

대한항공·귀뚜라미·새우왕·하기사·롯데백화점·이마트 ...

36개 브랜드 "13년 연속 1등만 했다"

대한항공, 비씨카드, 귀뚜라미 등 36개 브랜드가 13년 연속 '최고 브랜드'로 선정됐다.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은 전국의 소비자 1만1400명을 대상으로 196개 산업 부문에 걸쳐 '2011

한국산업의 브랜드 파워'를 조사한 결과 36개 브랜드가 1999년 조사 시작 이후 1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고 7일 밝혔다.

KMAC 측은 "많은 브랜드들이 신생과 소멸을 반복하고 있지만, 소비

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장수브랜드도 늘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별로는 내구재 산업에서 린나이(가스레인지), 영창피아노(피아노), Z:IN window(창호재), 매직스팀오븐(복합오븐) 등 46개 브

랜드가 1위를 차지했다.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비재 산업에서는 LOCK&LOCK(밀폐용기), 해표식용유(식용유), 케토톱(불이연관절염치료제), 부라보콘(아이스크림), ESSE(담배) 등 총 80개 브랜드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비스재 산업에서는 롯데월드(테마파크), 주니어플라톤(독서토론학습), 한국타이어전분점 T'Station(타이어전문점), 하이마트(전자전문점) 등 70개 브랜드가 1위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SINCE 1982

좋은 보청기를 쓰십시오

* 매우 잘 들립니다. * 안보입니다. * 가격이 맘에 듭니다.

국제보청기

www.kjhr.com

전자습기제거기 (Avantgarde) New Dry box 새로운 전자습기 제거기 출시

- ★ 기존의 습기제거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여 UV 광자외선을 통해 보청기의 박테리아까지 99.9% 제거해주는 신개념 습기 제거기
- ★ 우리 몸은 수분으로 인해 귀 안에 항상 습기가 차게 됩니다. 이런 습기와 귀지로 인해 보청기 기능이 저하되게 됩니다.
- ★ 보청기는 인체에 착용하는 기계입니다. 그러므로 살균처리와 청결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알케모르케 보이는 박테리아로 인해 인체에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세균을 이제는 새로운 전자습기 제거기로 해결하세요.

본점 062-227-9940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동 81-1

충장점 062-227-9970

순천점 061-752-9940

전라남도 순천시 영동 32-5

목포점 061-262-9200